

호치민 오남매네

12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MERRY CHRISTMAS



수연이가 소개하는 오남매



애들아 여기 좀 치워줄래..?
♥ 우리 중 최강 깔끔이 재열 ♥
오빠 미안...



애들아 하루에 내 이름 10번 이하로만 불러 줄래..?
♥ 나름 만능인 상표 ♥
에어컨, 싱크대, 건조대 등 가전기구 A/S가능



언니 무릎 괜찮아..?
♥ 우리 팀 최강 덜렁이 소희 ♥
그녀의 다리엔 늘 멍이..



오남매 먹고 사는건 내가 책임진다!
♥ 총무의 신 수연 ♥
가계부쓰기 귀찮ㅎ..ㄷㅏ..☆



이게 바로 진정한 인싸의 길
♥ 우리 팀 최강 에너지이저 수민 ♥
너와 있으면 우린 항상 party!!

12월 이야기 한 눈에 보기



01. 대 망 의 중.간.격.려!!

02.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 우리의 프로젝트 Story
- Gia Lai 마을 방문
- Path Way School
- KY QUANG PAGODA

03. 저희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 축구, 크리스마스, 이사, 갑작스런 Good bye 등등 볼거리 가득!!

04. 오남매 사진전

05. 12월 고민거리

06. 개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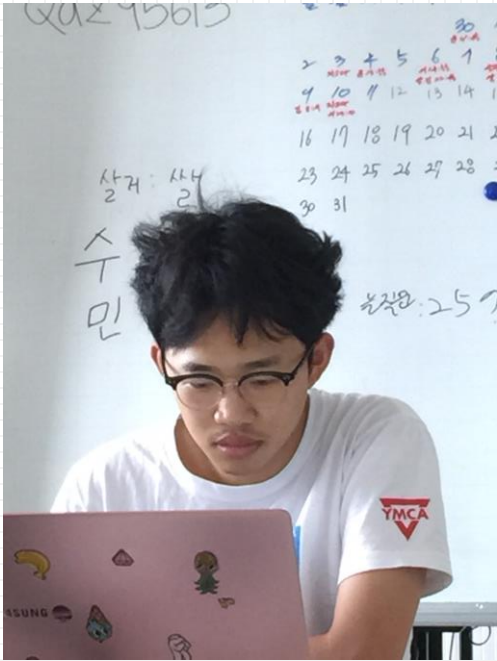
이. 중.간.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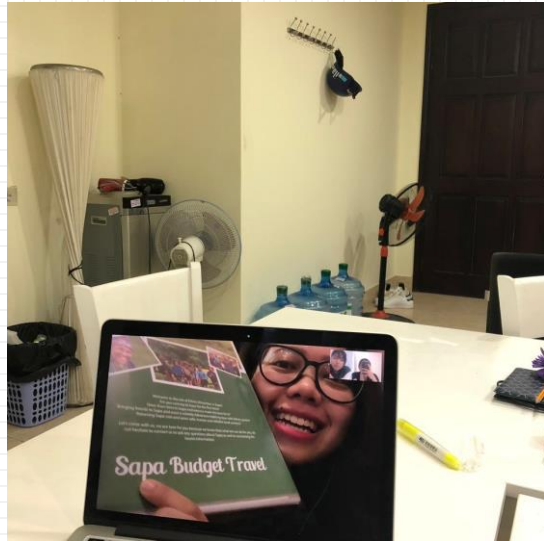


중간평가 준비!!

PPT, 동영상, 프로젝트 기획 등등.. 중간발표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완벽한 발표를 위해 최고 바쁜 일주일을 보낸 우리!!



중간평가가 재열에게 미치는 영향,,,



하노이 출장 중에도 우리를 위해 화상 회의해주는 우리 코디네이터..♥



YSD 친구들도 저희의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3일 밤샘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소희



먼 길 오신 승철 감사님.. 프로젝트 피드백도 주시고 ㅠ ㅠ



기다리던 간사님들, 팀장님 만남♥



이렇게 배웅 준비도 하고~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 주신 규홍간사님ㅠㅠ 쏘스윗,,



안산 장동건 윤승철 간사님이 가장 처음 저희를 찾아 주셨어요!



김규남 팀장님, 양동화 간사님 환영합니다 ♥



중간발표 시작! 12월 07일

어떤 내용을 발표했을까요~?

1. 주요활동소개- **Ky Quang Pagoda, Niemtin, 어린이병원**에서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이곳에서 찾은 문제점도 발표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Field Trip- 총 3번의 필드트립 장소를 소개하고, 이 활동으로 다양한 베트남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도 나눠보았어요~
★ **메콩강 탐방**: 자연환경으로 베트남 이해하기, **구찌터널 방문**: 역사로 베트남 이해하기, **SOS Village**: NGO로 베트남 이해하기
3. 특별활동-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빈곤퇴치캠페인**,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이었던 **중학교 프로그램**, 베트남 교육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던 **Path Way School** 활동까지 소개~

그 외 기획중인 프로젝트 소개와 앞으로의 활동계획까지 나누었습니다!!





간사님, 팀장님과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

모든 발표가 끝이 나고 본격 추억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단체사진 >3<



저희 활동지인 Glass Bone Center에도 찾아 주신 팀장님과 간사님 ♥



수민이가 가족사진 같다고 했다~ With. 규홍간사님



규홍간사님이 만들어 주신 감바스 JMT.. With. 딘



YSD 친구들도 함께한 호치민 나들이~~



너무너무 자상하신 팀장님과 반세오 맛집도 갔답니다~~



호치민 저녁거리를 걸다가 한 컷!! With. 장동건

02.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오남매의 프로젝트 첫 번째 STORY !!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앞서, 그동안 호치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사회문제들, 또는 직접 활동을 했던 기관에서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어요!

1.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The Charity Club Activity

이대 봉사 동아리 활동의 참여는 우리가 베트남의 의료환경을 보고 싶어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활동이다. 우리는 봉사동아리가 활동하는 장소에 장관을 함으로써 베트남의 아동 의료 환경 그리고 대학 봉사동아리의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미래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봉사동아리는 3곳의 활동지를 바탕으로 봉사하는 300명 이상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이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The Charity Club Activity

End poverty campaign

5 캠페인 시작!!

첫 번째 장소였던 영스컬처 하우스. 많은 국제학교 학생들을 만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호기심 가득 아이들의 참여율 Good!)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간식~

홍보용 판넬도 직접 만들었다~

★ 여기서 잠깐! ★
이 외에도 각자가 프로젝트로 다뤄보고 싶어 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 베트남 노동안전환경에 대한 프로젝트
- VolunTour에 대한 프로젝트
- 베트남 대기환경에 대한 프로젝트
-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11월 활동이었던 호치민 어린이병원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이 병원에 방문한 후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병원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도,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길고 긴 병원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병원 복도에서 거주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고 저희 오남매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여가, 취미 활동들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또한 저희는 10월에 빈곤퇴치캠페인도 진행 했었는데요~ 캠페인을 진행하며 저희는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 빈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준 의견은 "베트남의 진짜 빈곤은 외곽, 시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였어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캠페인성 단기프로젝트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기프로젝트를 원했고, 그에 더욱 부합하는 병원활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는 지원과 후원이 비교적 적은 시골지역의 병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남매의 프로젝트 첫 번째 STORY !!

2. 기관 선정.. 어렵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교외지역의 병원들에 컨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인 우리가 병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웠고, 이는 교외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ㅠ ㅠ

이 과정에서 저희의 코디네이터인 플레이어는 **Gia Lai** 라는 한 소수민족마을을 추천해주었어요.

그 곳은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부족했고, 저희가 활동하길 희망하는 메디컬센터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부의 허가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희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이죠..

결국 YSD에서는 비교적 컨택이 쉬운 새로운 기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바로 동나이 지역의 한 고아원!

하지만 이 고아원을 검색해본 결과 그곳은 이미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고, 이는 저희의 프로젝트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곳이란 결론을 내리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적과 더욱 맞는 Gia Lia 마을의 메디컬센터 컨택에 더욱 집중,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ia Lai의 허가를 받기 위해 했던 우리들의 노력...with 플레이어★

-호치민 영사관으로 추천서 받으러 가기

-YMCA의 추천서 받기

-Gia Lai 정부에 장문의 편지와 지금까지 우리가 호치민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자료들 보내기



오남매의 프로젝트 첫 번째 STORY !!

3. Gia Lai 쉽지 않다...

그렇게 저희는 Gia Lai 프로젝트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 예산, 일정 등을 기획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ㅠ ㅠ

그것은 바로 **이동비용**이었어요. Gia Lai는 호치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산악지방으로 차로 11시간을 이동해야 했어요.

때문에 저희는 렌터카를 빌려야 했고, 그 비용은 어마어마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 활동을 총 5회기로 기획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5배였죠..

단순히 이동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과연 이 프로젝트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일까, 오히려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등등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5회기의 활동을 **2회기로 줄이고, 한 회기 당 2박3일 일정**으로 조정하여 차량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중간평가가 다가왔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에 사무국에서 온 피드백은 "한번도 교류하지 않은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과연 서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 모두가 동의한 부분이었고, 마침 그 시기에 Gia Lai 마을에 사전답사를 다녀올 수 있는 일정이 잡혀있었기에 (이 일정은 뒤에 더욱 자세히 소개됩니다^^) "한 번 가보고 나서 고민해보자!" 라며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오남매의 프로젝트 첫 번째 STORY !!

4. 사전답사를 다녀온 후.. 활동 컨셉을 바꿔야겠는데?

자, 그렇게 저희는 Gia Lai 마을에 사전답사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전답사 활동은 저희에게 큰 혼란을 주었어요.

첫 번째,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의 밤은 너무도 어둡고 위험요소가 많았어요.

두번째 육체적인 피로도 무시하지 못했어요. 차량 11시간 이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시다.

세번째 장기적인 임팩트를 모르겠다.. 오로지 2회기 활동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이에 저희는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해결방법을 찾으려 노력한 결과!

안전문제는 마을 내의 한 사찰에서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이곳은 마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답니다.

또한 활동의 컨셉을 바꾸며 회기도 2회기에서 1회기로 줄이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피로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기적인 임팩트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이 때 마침 저희 코디네이터가 한 초등학교를 소개해주었어요.

이 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기획한다면 장기적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저희의 최종 프로젝트는 <Gia Lai 아이들과 함께하는 관계 맺기 활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월 계속-





오남매의 프로젝트 두 번째 STORY !!



오남매의 두 번째 프로젝트, <KB HOPE GARDEN>을 소개합니다!

1. KB HOPE GARDEN이 무엇이죠~?

저희의 장기활동 장소인 파고다에 저희 오남매가 직접 만들 텃밭 이랍니다~

이 텃밭에는 다양한 식물들(상추, 청경채 등)을 심을 수 있어요!

또한 많은 봉사자들이 찾는 파고다인 만큼 이 텃밭에도 누구나 씨앗을 가져와 심을 수 있고, 물과 관리를 해줄 수 있답니다~

2.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죠?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한 장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항상 느껴온 파고다의 문제점인 기부방식,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부족,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부족 등을 고려하던 중 문득!

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텃밭이 떠올랐답니다!!

★항상 빵과 과자, 초콜릿의 후원이 많은 파고다에, 이 텃밭에도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다양한 기부방식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파고다 아이들이 많이 알고있는 아토피에도 빵과 과자보다는 텃밭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가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파고다 아이들의 경우 상당 시간을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장난감만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내는 데,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등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었지요~



오남매의 프로젝트 두 번째 STORY !!

3. 텃밭 제작기!!

우선, 파고다 측의 허락과 아이들을 위한 식물이 무엇인지, 베트남 기후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스님을 만나 보았어요~



스님과 열심히 회의 중인 오남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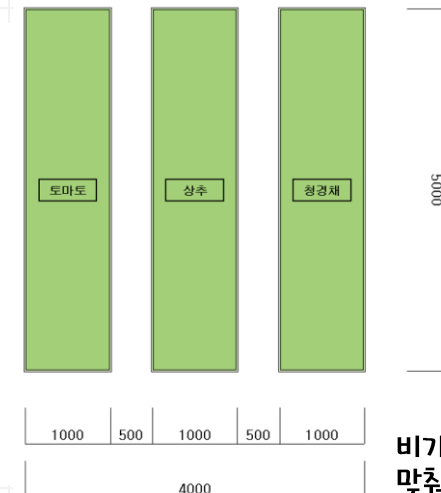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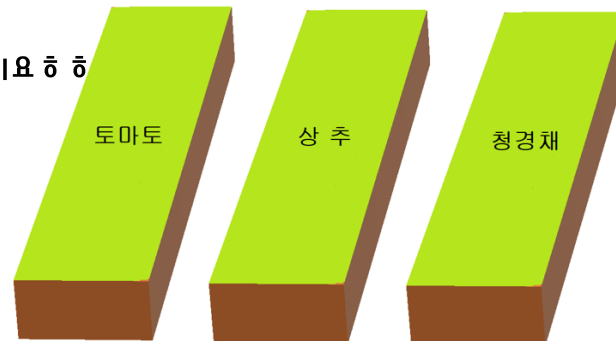
이것이 쿠바 식 텃밭!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파고다에 가장 최적의 텃밭이 될 수 있는 쿠바 식 텃밭을 생각해냈답니다! (위 그림참조!)



가상의 텃밭도 만들어 보았지요 ㅎㅎ

이렇게 길이도 재고~



비가 많이 오는 베트남 날씨에 맞춰 높~은 텃밭을 기획중임!



오남매의 프로젝트 두 번째 STORY !!

3. 텃밭 제작기!!

쿠바 식 텃밭 자재들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텃밭 설치 예정 위치에 이렇게 못 보던 골조들이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멘붕..

서둘러 스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파고다 입장에서 빠른 진전이 없어 보이는 텃밭 상황을 보고, 스님께서 직접 새로운 방식을 만든 것 이었어요.

이 골조로는 예정 된 쿠바 식 텃밭을 절대 만들 수 없었지만, 스님께서 만드신 구조물을 제거할 수 도 없었기에,
저희는 이 골조를 이용한 새로운 텃밭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골조가 설치되었을 때는 큰 혼란이 있었으나,
쿠바 식 텃밭에 필요한 나무비용이 절감되었고(나무 되게 비쌌음..), 스님께서 만드신 골조를 이용해 텃밭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오남매 만이 아닌 파고다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남매가 직접 만든 텃밭,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결과는 1월에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오!!>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소희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사실 나는 굉장히 힘들었다.

항상 노력하면 가능할거라 생각했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자신하던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꼈고, 스스로 느끼는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심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여기에 기존에는 우리의 일에 신경 쓰지 않던 기관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욱 많은 감정 소모를 했던 거 같다.

물론 이것은, 내가 중간평가를 통해 결국 그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서 온 하나의 과정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와 활동을 함께하는 베트남 친구들 이외에 정말 YSD 기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한다는 느낌은 없다. 처음이기에 모두가 서툴고, 함께하는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4개월을 지난 이 시점에서 받아들이게 된 부분이다.

그리고 처음이기에 좋은 점도 분명히 많다. 우리의 색깔을 더 많이 담아낸 활동을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이라서 소중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느끼고 알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욱이 '처음'이어서 동시에 힘든 것도 유독 크게 느꼈던 거 같다.

우리 팀의 상황과 특징을 보자면,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열정'이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만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오가는 효과와 효율성 그리고 이것의 지속성, 현지의 상황과 특색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니,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어려웠고 고민이 많았던 거 같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원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위해 찾아서 하는 느낌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따라다녔던 거 같다. 현재도 우리의 프로젝트는 진행형이다. 결과보다도 우리가 고민하던 그 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수연

지금까지 호치민에 있으면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물론 불편한 점들은 있었지만..)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우리 스스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의 손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외국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준비에 상당부분 뒤로 물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불편했다. 기관컨택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쫓기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을 취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이라도 편하다. 하지만 언어, 문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오로지 현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만 여러 정보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척 답답한 사실이였다. 우리 팀은 유일하게 전자기기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준비에서도 전자기기의 이점을 이용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 하긴 하지만, 내가 전자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인지, 아님 베트남에서 이방인인 우리가 전자기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계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인 만큼 부디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되길.. 열심히 하자!!



상표

프로젝트, 사실 힘들었다.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없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
 Ky Quang Pagoda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족스러웠다. Ky Quang Pagoda에서 가장 오랜 시간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렇다고 음식이나 장난감 등으로 후원을 하자니 이미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식으로 후원할 경우 과자나 간식 등으로 후원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아이들의 피부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민한 끝에 공터를 활용하여 텃밭 만들기 활동을 생각했다. 새로운 후원방식에 대한 소개와 바른 먹거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Ky Quang Pagoda에서도 이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고민되는 지점이 많지만 고민보다는 설렘이 더 많은 활동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1. 파고다 프로젝트

우리는 파고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후원물품의 대부분이 과자인 것을 보았다. 대부분 아이들은 과자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다. 이런 후원이 하루에도 서너 번은 반복된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과자의 양은 상당하다. 그 때문인가 상당수의 아이들은 피부병과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과자 때문이라고 백 퍼센트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과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파고다에서 텃밭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또한 우리는 파고다 안에 스님에게 사람들이 과자를 후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과자를 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후원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에 주로 과자가 후원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자 말고도 다양한 후원방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텃밭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오빠들의 지휘 아래 우리는 하나씩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고 어느새 텃밭 모양이 갖춰졌다. 그리고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여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난생처음 씨앗을 심어보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해맑아 보였고 기뻐했기 때문이다. 한 공간 안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보람 있었다. 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만든 텃밭이 잘 자라나 궁금해 혼자서도 자주 갔었다. 그때마다 조금씩 자라는 상추와 청경채를 볼 때 너무 흐뭇했다.

2. gialai 프로젝트

나는 솔직히 gialai의 프로젝트의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나에게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활동이었다. 나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나서 선뜻 갈 수 없었다. 나에게서는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은 곳이라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우리 팀원이 있기에 나는 도전할 수 있었다고 느낀다.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gialai의 안 좋은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을 남기고 오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다.



수민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지금 프로젝트 중:

1) 우리의 첫번째 프로젝트인 작은텃밭을 만드는 것은 나의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팀원을 믿고 따라가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진행을 하고 팀원과 고민을 공유하며 나의 제안과 의견이 접목이 되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고 팀의 목적을 단단히 만들어내며 최종적으로 함께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또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Ky Quang Pagoda에서 나와 우리가 보낸시간이 가장 많은 곳으로 친밀한 교류와 신뢰가 베이스가 되어 나도 즐겁고 그곳의 사람들도 즐거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져가고 있어 굉장히 만족함을 느끼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 두번째 프로젝트인 GiaLai 프로젝트는 정말 순탄치 않은 상황으로 가득했고, 현재도 그러하다. 처음에 우리 팀의 목적에 의해 흘러갔지만, 도전적인 프로젝트이었기에 많고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 했었다. 프로젝트 자체도 우리에게 도전적이었지만 나에게도 많은 도전이 던져졌고, 도전을 해보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과거 프로젝트 중: 프로젝트는 쉽지 않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정말 다사다난 했고, 길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나는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설레고 즐거웠다. 하지만 우리 5명은 모두가 '다름'이 존재 했기에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 속에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가 고민이었고 어려웠다. 하지만 토의 끝에 우리는 프로젝트 주제가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며 순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두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마주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나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것 같다.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났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많이 지치기도 했었다. 매번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한쪽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른 방면도 바라봐야 하고, 모든것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접근하고, 효과와 파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했다. 그래서 많은 번복과 혼란이 존재했었다. 그 과정 안에서 나는 받아 들이기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야 했고, 나의 생각을 온전히 굽혀보기도 했었다. 또 다시 주장해보기도 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때로는 반대편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 상황을 팀에게 드러내는 것과 타협하는 지점은 나에게 항상 '큰 도전'이었고 '고난'이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나와 우리 팀은 프로젝트에 책임감이 생길 수 있었고, 팀원을 더 믿어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는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복잡한 상황이고, 천천히 다루며 나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과정이 마음에 들고,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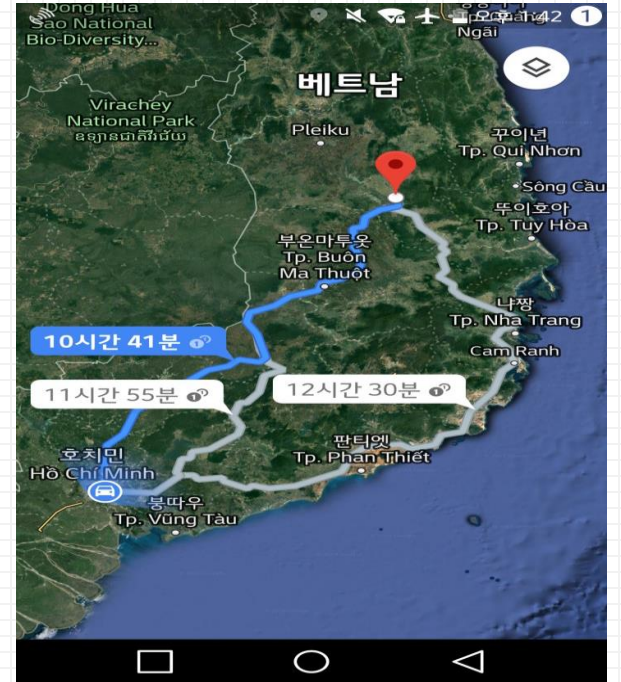
재열



Gia Lai 마을 방문

앞으로 오남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장소인 Gia Lai 마을!
베트남 봉사단체인 **Blue Dream** 친구들이 이 곳 마을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오남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덕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사전답사**를 다녀올 수 있었지요~

★ Gia Lai는 어떤 마을일까요~?



Gia Lai는 소수민족 마을로, 38개 민족으로 구성된 1,322,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중앙고원 북쪽 해발 800~900km에 위치한 산악 지방이에요! 평균 온도는 22-25°C 정도 된답니다.

저희 오남매가 살고 있는 호치민 에서는 차로 11시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Gia Lai 마을 방문

새벽버스로 달리고 달려 아침 10시 경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바로 활동이 시작되었답니다!
오남매는 이 곳에서 4개 팀으로 나뉘어져 활동했어요.

1. 요리 팀 : 재열

재열이는 점심메뉴였던 간장달볶음밥과 주민들에게 나눠드릴 야채죽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양의 음식이었지만 오남매 공식 요리사 재열이는 해냈지요!



실물은 말도 못하게 큼!!



재열이가 만든 달볶음밥 냘냘

2. 선물 팀 : 상표

상표는 주민분들께 나누어 줄 선물을 포장하고 나누는 작업을 했어요! 이 역시도 많은 양의 선물이었지만 묵묵히 본인의 일을 마친 상표.. ㄱ ㄱ



열일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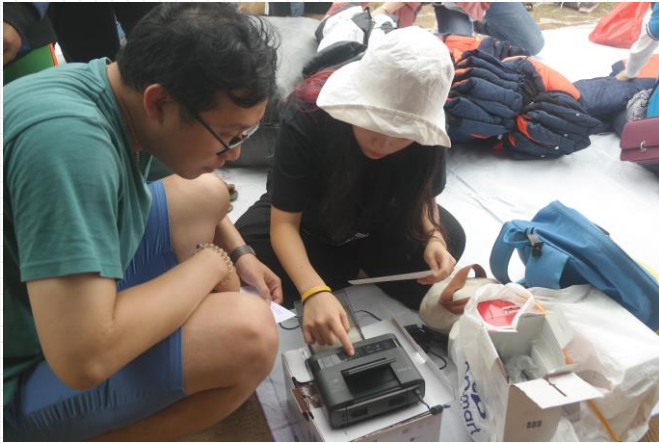
그 후...



Gia Lai 마을 방문

3. 사진 팀 : 수연

수연이는 주민분들의 사진을 프린트해 나눠드리는 일을 했어요! 처음 다뤄보는 기계였지만 베트남 봉사자들의 친절한 설명으로 나중엔 전문가 포스도 뽐어냈죠 ㅎㅎ



카메라와 연결된 프린터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온답니다!!

4. 놀이 팀 : 소희, 수민

소희, 수민이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놀이팀을 맡았어요~ 눈 가리고 땀버린 맞추기, 그림 그리기, 링 던지기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였답니다!



우리 막내도 게임 좋아함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소희~



Gia Lai 마을 방문

그 밖에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어요~



포토존을 만들어 예쁜 사진도 찍고~



색칠공부도 하고!



잘 보면 아이들의 장기자랑 시간!



인기 좋은 재일쓰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풍선아트!



Gia Lai 마을 방문

이렇게 낮 동안의 모든 활동이 끝나고~ Gia Lai에도 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했을까요?



밤에 있을 장기자랑 연습 중 ㅋㅋㅋ
맨날 집에서만 연습하다가 처음으로 좋은 경치와 함께♥



이렇게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캠프파이어!! 하태하태



대망의 댄스타임!! 있는 힘을 다해 불태웠다,,
반응도 GOOD!! 솔직히 우리.. 좀 잘 추는 듯 (아닌가?)



Gia Lia 정부에서 준비해주신 술과 고기! 술은 사진처럼 긴 빨대로 심판이 그만! 할 때까지 마셔야 해요~ 재얼쓰는 조금 힘든가 보네요 ㅋㅋ
고기는 순대에 허파랑 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민분들, 정부분들, 베트남 봉사자, 오남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Blue
Dream&
라운아피



Gia Lai 마을 방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수민

이 곳 아이들은 베트남 소수민족으로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통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눈빛으로 대화하고 손짓으로 의사소통 했다. 처음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말을 하면 안됐다.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긴장이 점차 풀렸다. 그리고 이곳은 베트남의 소수민족들만 살고있는 아주 시골이라고 들었지만 이 곳 아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sns를 하고 있었다. 우리를 라이브 방송으로 찍고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고 많이 놀랐다. 블루드림에서 준비한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저녁시간에 한 캠프파이어는 정말로 거대했고 굉장히 뜨거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노래를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들에 대한 보답으로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괜히 어깨를 치고가고 팔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 들어 그때부터 나는 무섭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곳에서의 기억이 좋지 않아 프로젝트를 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고 활동으로서의 기대감보다는 그 곳의 두려움이 더 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수연

자꾸 이방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12월에 들어 우리가 이방인이기에 힘들었던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던 Gia Lai 마을 사전답사.. 사실 호치민도 우리에게 낯선 도시이고 낯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방인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할 점은, 이 도시에 외국인인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꽤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 방탄소년단, 박항서, 한류 때문인가? 아무튼 나는 지금까지 베트남 사람들에게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배제를 당하거나 안 좋은 시선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번 Gia Lai는 달랐다.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마을인 만큼 외국인의 출입이 매우 적었고, 게다가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때문에 그 마을에서 활동할 때 우리는 정부사람들의 감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 거기에서 오는 회의감과 허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솔직히 되게 속상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 활동이 되기도 했다. 아마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깨우고 싶어서 였을 듯?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했던 것 같다. 내 판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 Gia Lai는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곳인데 이러한 제약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 될 것 같고, 더욱 생각을 넓고 깊게 하며 최대한 완벽한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고 싶다..



Gia Lai 마을 방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소희

짧은 순간이었던 만큼 그곳에서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사실, 우리는 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고 활동도 호치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GIA Lai Province 안에 소수민족이 살아가는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활동이 끝날 때까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곳에서의 나는 정말 행복했다. 호치민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던 나에게 자연의 바람과 풍경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이유로 과분하게 사랑을 주던 사람들 덕분에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 같다. 그런데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긴 이동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니, 그저 내 행복만이 끝인게 아닐까 하는, 그러한 슬픈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떠나고 간 자리에 그들의 삶은 지금처럼 이어질 것이며, 나는 그 삶 속에 고작 하루를 같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주고, 받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기에는 제한되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결국은 이전에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GIA LAI의 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에 제한점이 너무 크다는 것. 그곳에서 무거운 짐을 버거워하시는 할머니를 대신해 짐을 들고 바로 근처의 집에 데려다드리는 것조차, 베트남 공무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의 시간. Blue Dream club과의 교류,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놀랍게도 K-pop를 외치며 우리에게 다가와준 아이들, 마을의 문화 체험.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프로젝트는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외국인이 익숙하지 않은 마을의 문화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과정이 그 짧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란 어렵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던 거 같다. 팀원들이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이곳이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믿는다.



상표

11시간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예전에 18시간 비포장 야간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만만하게 생각한건 사실이다. 그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환경과 시간은 편했지만 몸은 더 힘들었다.

Gia Lai에 도착하자마자 든 생각은 '가난', '빈곤'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내 몸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활동을 하고는 싶은데 몸은 힘들고 계속 축 쳐져있었다. 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했다. Gia Lai를 온전히 담았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잘 못했기에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실수하고 못하고 나로 인해 펍크가 난 점은 없지만 내가 많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나의 역할이 빛나지 못한 점들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Gia Lai 마을 방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 피드백

나는 또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좋았다.

첫째로, 나는 블루드림 클럽의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클럽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진심 어린것을 보았다. 그리고 소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과 방법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프로젝트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말이다.

둘째로, 나는 새로운 모습과 사람들을 통해 배웠다. 그 마을 사람들의 환경은 내가 살아온 환경과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또 특히 소수민족의 사람들로서 언어와 환경이 베트남과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름'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 마을에 가기 전 우리에게 당부 받은 것은 '마을사람들과 소통하지 마라'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외국인으로부터 안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상이 남겨져있는 것이 아쉬웠고, 이곳에서의 활동이 주어진 일 외에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전부이었기에 아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블루드림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서 '다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셋째로 나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았다. 이 곳 방문 직후의 느낌만을 적어 본다면 나는 이곳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간격려 기간에 간사님이 던져 주신 의견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았었다. 나는 너무나도 그 곳이 낯설고 마을 사람들도 내가 낯설다. 서로에게 '낯선이'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프로젝트가 얼마나 효과적 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긴것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베트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경험 할 수 있어서 좋다.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롭고 다양한 환경과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이것만을 원하지 않았다.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서로 성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점이 고민을 했었다. 또한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 예산은 베트남 노동자의 월급과 비교했을때 정말 큰 돈이다. 그런데 그 예산이 베트남 사회와 사람들에게 사용 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사용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파장은 어떨지 예상을 못하는 것이고 어마어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큰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 나는 '차라리 프로젝트를 하는것이 맞는건가?'라는 큰 고민이 있었다.



재열



Path Way School

이번 달 Path Way School 활동은 총 2번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English Contest** **참관** - 이번 Contest는 아이들의 꿈과 가족소개 등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경쟁이 아닌 도전의 시간이며, 승자와 패자가 아닌 승자와 배운 자 만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말은 저희 오남매의 심금을 울렸죠..



최연소 참가자였던 1학년 귀요미 친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소개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발표한 친구~
플라스틱 사용을 줄입니다!



모든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Path Way School

두 번째! **한국소개와 크리스마스 맞이 Wish Tree 만들기** 수업 진행
저희 오남매는 5학년 교실에 들어가 한국의 문화 (태극기, 한복, 먹거리, 한글, 수도)
에 대해 소개하였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본인의 Wish를 담은 나무도 만들어 보았어요~



한국어를 알려주고있
는 상표~



소원나무 완성<



인기폭발 수민~

Wish Tree 설명 중!!



수연이의 소원은 무
엇이었을까요?



Path Way School 활동에 대해 오남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라온아피가 필요한 학교는 아니다. 국제학교로서 상당한 수준의 시설과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이다. 부모님의 상당수가 외국인이고, 베트남인 부모일지라도 외국인을 충분히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빈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해야 할지에 대해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빈곤'과는 거리가 먼 학교이고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녔던 기관 중 가장 '라온아피'스러운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라온아피-학생-학교가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관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이 추후 베트남사회의 빈곤이나 기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 나는 path way가 영어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심해 이곳 활동에서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수업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다. 다행스럽게 아이들 옆에서 도와주며 활동 하다 보니 부담감이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비록 말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씩 답을 해 주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과 사진 찍고 보내는 시간에서는 아쉬움도 남았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이 Pathway School 수업 활동은 팀원의 계획을 따라 갔었다. 준비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과 열정이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히며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팀이 준비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더욱 친밀하게 교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나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었던것 같다.



KY QUANG PAGODA

우리 팀의 장기활동!

KY QUANG PAGODA는 12월에도 계속되었답니다~
이젠 안보면 보고싶고 허전한 우리 유치부, 뇌성마비 친구들♥



아기고양이와 놀 때는 조심조심~



즐거운 미술시간!



눈웃음 녹는 중..♥



물 먹다가 잠들어 버림~



세상 시크하게 우유 먹는 중



너무 작은 아가..



KY QUANG PAGODA

12월 어느 날씨 좋은 날, 유치부 & 유아부 친구들과 **담선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줄도 잘 서는 우리 똑똑이들



도라에몽 주먹 시.선.강.탈



아저씨 뭐하세요?



귀요미 두명의 만남



터이어이(스님)와도 한 컷!



카메라 잘 찾는 재열쓰



긴장x1000

03.

우리들의 생활 이야기





무더운 CHRISTMAS ♡

오남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홈파티를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우스메이트 '딘', 코디네이터 '플레어', 봉사자 '트'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고마워유~~ππ) 귀한손님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준비한 이 날의 메뉴는 고추참치볶음밥, 라볶이, 짜장면이었어요 ㅎㅎ (사진 없음 주의ππ 먹느라 바빴음,,)



한땀 한땀 직접 만든 오늘의 포토존



멋 이란 게 폭발한다 딘



러블리 코디네이터 플레어 ♡



초귀요미 담당 트 ♡



함께여서 행복했던 크리스마스 ♡



케이크 2개!! a가 어디로 갔지,,?



가장 현장감 넘치는 사진~!!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한국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굉장한 성적을 내고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달 끝이 난 스즈키 컵에서 베트남 축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 오남매도 베트남팀을 응원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엄청난 인파!!



그 속의 우리



멋지쥬?



오남매 공식 SWAG 피플



드디어 우승!!



열기 대단했구요



기분 너무 좋고~



거리엔 온통 축제의 오토바이들 ㅎㅎ



이사, 갑작스런 GOOD BYE..

저희는 12월 31일, 약 4개월 동안 살았던 정든 집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서둘러 집도 알아보고, 짐 정리도 하며 이사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의 동네.. 시장, 단골식당, 슈퍼, 산책로, 이웃분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슬펐던 건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저희의 하우스메이트 '딘' 과의 이별이었어요. 영원한 이별은 아니었지만 이제 전 처럼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웠죠.



딘 덕분에 첫 영화 성공적이었죠



우리를 위해 요리하는 딘ππ♥



정든 우리 집ππ



딘 귀엽고요~



이젠 정말 갈 시간..

04.

오남매 사진전





서로에게 주는 사진 선물 ♡

<상표가 수민이에게..>



나 때릴려고 했냐?



수민이 아이 좋아함^^



솔찍히 눈 감고 있음

<수민이가 상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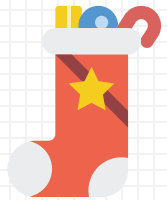
"뭘 봐 똥똥한 사람 처음 봐?"



"웃어라^^"



"말 시키지마, 지금 씻는 중이야"



서로에게 주는 사진 선물 ♡

〈소희가 수연이에게..〉



아들, 같이 다이어트할래?

〈수연이가 재열이에게..〉



OH.. SO COOL G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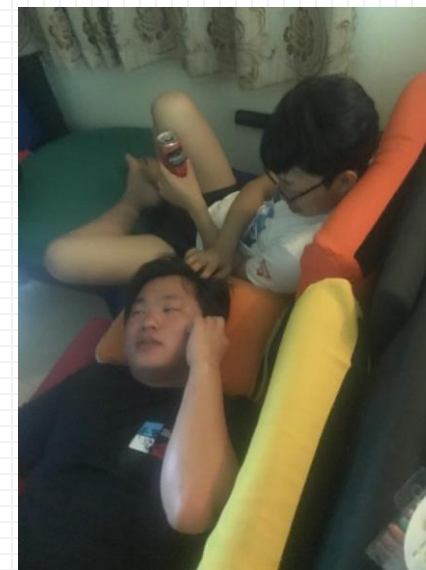
"상표야 얼굴 제대로 구기자^^"



호치민 아낙네의 수줍은 짝사랑



"나는야 인형이 젤루조압..♡"



"난 너의 비듬까지 사랑할 수 있어..☆"



서로에게 주는 사진 선물 ♡

〈재열오빠가 소희에게..〉



내 입에 제일 커



동반자

처음으로 소희와 상표가 닮았다고 생각한 순간



오남매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오남매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05.

12월

고민거리





오남매의 11월 고민은 무엇이었죠~?

- 각자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달랐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프로젝트로 녹여내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 하고 싶은 주제가 달랐다. 결국 '나'에서 '우리'로 함께 활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고민이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고민은 어떻게 되었나요?

- 프로젝트에 있어 팀원의 여러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키려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보고, 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의견으로 따랐다. 또한 이렇게 의견을 통합시킬 때에는 서로의 분명한 합의도 있었지만, 다른 팀원의 의견으로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었다. 간혹 이것이 팀원을 믿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포기할 하고 가는 것인지는 각자마다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 '나'에서 '우리'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다면 12월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 12월의 고민은 프로젝트에 있어 조금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기획 중인 프로젝트를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단계이고, 그 속에서 예산, 일정, 허가 등의 여러 문제들을 겪었다. 때문에 계속되는 지연, 실패, 회의의 반복으로 적지 않은 피로가 있었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다. 12월은 우리의 바람과 현실성의 괴리를 크게 고민한 달이다.

06.

개인 에세이



수연이의 12월 에세이..

#이렇게 초심을 찾고 싶을 줄이야..



12월은 어느 달보다 더 시간이 빨랐던 것 같다. 12월의 반 정도를 중간격려로 시간을 보내서 그런가, 시간순삭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중간격려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 에세이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귀국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다. 국내훈련까지 포함하면 2018년 절반을 라온아피에 쓴 것이고, 꽤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어느덧 새해 이다. 내 라온아피 시간 다 어디 갔니..? 바라고 바랐던 라온아피 만큼 시간을 소중하고 값지게 쓰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달은 중간격려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처음 라온아피에 도전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항상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국제자원활동이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도 아주 조금 스스로의 정의가 내려진 것 같아 위안이 되긴 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모두가 잘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국제자원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4개월 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과연 나는 이 다짐을 염두 해 두고 생활했을까..? 단순히 나만 배우고 성장하는데 집중한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을 하게 된 달이기도 하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기관 YSD는 우리의 활동을 서포트, 지지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항상 '협력', '함께 성장' 이라는 단어는 빼놓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단순히 한 방향에서 영향력이 가는 것이 아닌, 국적이 다른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활동은, 최소한 나의 행동과 생각들은 나와 그들을 분리한 채 생활해왔다는 자책이 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작던 크건, 그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그렇기에 라온아피에서 말하는 민감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느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배우고 싶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함께 성장한다는 점을 깊게 고민하며 남은 라온아피 시간을 마무리 하고 싶다.

수민이의 12월 에세이..

나는 라온아피를 하면서 달라지고 싶었고 변화하고 싶었다. 그러나 베트남에 오기 전, 라온아피를 하기 전의 나의 모습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었다. 라온아피가 끝나기 전에 꼭 무엇인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나로서 끝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베트남에서 5개월을 나는 뭐 한 걸까? 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머리를 염색한 것도 이 이유기도 했다. 걸으로 라도 변화하고 싶었고 달라져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 전 기수이자 나의 소중한 친구 재준이와 통화를 했다. 준이는 나에게 네가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바뀐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너무 초조해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이 편해졌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걱정에서 나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변화하면 하는 대로 변화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초조하고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기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그냥 나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나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시간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베트남에 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는 다섯시부터 여섯시 사이이다. 그쯤에 나는 힙색을 매고 집을 나선다. 음악을 최대한 크게 틀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걷다 보면 땀이 조금씩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내 삶을 조금씩 뒤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것인지 온전히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거의 두 시간 정도를 혼자 걷는 편이다. 걷다 힘들면 벤츠에 앉아 쉬기도 하고 카페에 들려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하고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은 이 곳에서 나의 힐링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재열이의 12월 에세이..

12월 서른 한개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 내가 이 한달 동안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경험 했을까? 돌이켜보면 '멍 해진다' 일단 나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다. 중간격려,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다이나믹한 현지생활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다. 나는 지난 아피를 하면서 보낸 모든 한 달 들이 매달 새로웠고 더 어려웠고, 더 의미있었던 시간을 보냈었다. 하지만 12월은 새로이 느끼는 크기가 더 더욱 컸다. 많이 어려웠고, 많이 의미있었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12월 초,
월의 시작은 '중간격려 기간'이었다. 이 기간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중간격려'라는 단어보다 '중간평가'라는 단어를 생각하였고, 그 준비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나 이 기간은 '중간평가'가 아닌 '중간격려'이었다. 나는 간사님, 팀장님,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격려를 받고,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받는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남은 라온아피 기간동안 더 민감해지고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져오고, 과거의 소중한 생각들을 다시 되가져오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12월 중,
중간격려를 마치고 나는 중간격려를 통해 얻은 다양한 고민, 생각, 마음가짐 등 이것들을 되새기고 외우며 활동으로 돌아갔다. 11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Pathway School, Ky Quang Pagoda, Blue Dream 에서 활동을 해 나아가며 또 다른 새로움과 배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Blue Dream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를 접했기에 새로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고, 나머지 기관들은 이전에도 시간을 보낸 곳이었지만 나는 그 곳에서의 시간을 곱씹어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로웠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곳의 아이들과 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어려움은 존재했지만 즐거움이 가득했다. 또 의미와 추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며 주어진 활동 만들어간 활동 모두 잘 해내었다고 생각한다.



재열이의 12월 에세이..

12월 말,

활동을 하면서 우리팀은 항상 프로젝트 준비 속에 있었다. 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다름'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보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주장하기, 기다리기 등 여러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었다. 나 뿐만이 아닌 우리 팀원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였다. 이 시간은 어려웠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또 이러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한 뼘 더 성장했을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한계에 부딪혀 보았고 조금이던 많이던 좋은방향으로 함께 왔기 때문이다.

12월을 돌아보면 나는 저러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간처럼 새로움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한달은 가장 많이 여유 없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도전 해보는 한 달이었지 않았나 싶다.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어려워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시간을 만족해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이 얼마나 성장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래에 깨닫게 될 포인트에 있어서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한 달 뿐만 아니라 매 달 이래왔고, 매달 이렇게 느꼈다. 그랬기에 이러한 반복 속에서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내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내가 이번 한달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찾아 온 메시지들을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기며 다음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수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내 자신에게 바라고 응원한다. 그리고 2018년 365개의 모든 하루가 의미 있었듯이 앞으로의 모든 하루도 의미있기를 바라며 12월 에세이를 마친다.

P.s) 이 달 나에게 온 메시지

나 자신 사랑하기, 나 자신 알기, 모든것을 품으려 하지 않기, 구분하지않고 같이지 않기, 힘듦을 통한 성장과 놓치지 않기, 부딪혀보기, 내사람 이해와 믿음, 다 다르다, 정답은 없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Dreamer Beliver Lover Runner.

소희의 12월 에세이..



이번 보고서에서는 12월의 경험들에 대한 느낌들을 정말 솔직하게 적어내고 싶었다. 그만큼 많은 일들과 깨달음이 있었던 달이고, 나와 우리를 되돌아본 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한 달을 남겨 놓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도 활동이 끝나기 전에 호치민에서 살아가는 나를 그대로 담아내 보려고 한다.

이번 12월은 프로젝트와 중간평가를 겪으면서 여러 감정들이 공존했던 달이었던 거 같다. 기쁨, 슬픔, 뿌듯함, 좌절 등.. 사실 중간 격려 기간 때 '그럼 너는 정말 괜찮니?'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힘들기는 했지만 괜찮다고 답했다. 정말로 그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혹은 습관처럼 나온 답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정신없이 중간 격려가 지나고 한 일주일 동안은 혼자서 계속 힘들어했었다. 처음이라서 겪는 이 모든 과정들이 버거웠고, 어떻게 우리 팀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YSD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베트남 봉사자들과는 어떤 식으로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 누구도 답을 모르는 이 길을 걷는 것이 힘들었다. 항상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걱정을 이야기하는 코디네이터에게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나의 나약함을 내보이는 달이기도 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본 한 베트남 친구는 '너는 프로젝트가 실패할까봐 두렵니?'라고 내게 물어봤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답했다. 분명 그건 아니었다. 그저 이 상황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꿈은 내려놓고 싶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베트남에 온 이상 어떤 상황이든 마주하고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여겼고, 그 과정들이 힘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답했을 때, 그 친구는 '그렇다면 괜찮다.'라고 말해줬다. 사실 그 때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실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과정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괜찮다는 말이 나에게 큰 힘이었고, 지금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었던 만큼 연말이 선사하는 추억들이 그만큼의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같다. 팀원들과 기념일을 보낸 시간들, 또 우리와 시간 날 때마다 함께 해준 베트남 친구들. 그리고 중간 격려 기간 동안에만 가능했지만... ^^ YSD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도, 참 새롭고 또 색다른 경험들이 2018년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었다.

라운아피로서 마지막 한 달을 남겨 놓 나는, 그리고 모두의 마음은 똑같은 거 같다. 믿기지 않고, 시간이 빠르고, 아쉽기도 하고. 역시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처음 9월과 같이, 고민들은 여전히 많다. 그 고민들의 주제와 내가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여전히 우리는 ing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 보다도 우리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다시금 느낀다. 이렇게 에세이를 쓰다 보니 정말 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같다.. 와.. 집중하자 집중!! 현재의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는 내가 되기를!

상표의 12월 에세이..

참, 2018년이 빠르게 지났다. 2018년을 시작할 때 내가 베트남에서 라온아띠를 한다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물론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 할지는 몰랐다. 1년을 마무리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

1년이 아닌 12월을 마무리 하면서 드는 생각은 Ky Quang Pagoda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뿌듯하다. 무언가 주고 싶지만 뭘 해줘야 할지 몰랐다.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찾아낸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새롭고 참신하지만 꼭 필요하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2018년이 끝나고, 12월도 끝났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라온아띠를 하면서 아쉬운 것들을 참고하여 남은 1개월 동안은 아쉬운 것들을 채우는 시간으로 가지고 싶다. 남은 1개월을 잘 정리해 후회 없는 라온아띠로 정리하고 싶다.



Thank you

Cảm ơn

